



제재 정리 6. 한국 문학의 흐름 (1) 옛 노래 세 편 감상하기

학번: _____ 이름: _____

제망매가_월명사

■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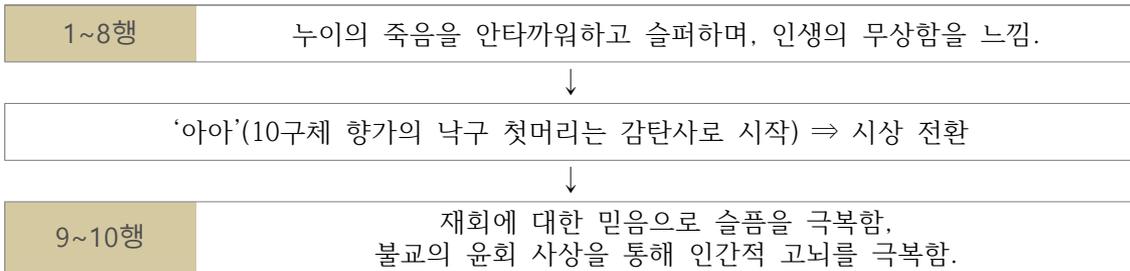
갈래	향가
성격	서정적, 애상적, 추모적, 종교적
제재	누이의 죽음
주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극복 의지,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특징	① 혈육과의 사별에서 오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함. ② 비유, 상징 같은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 기교를 사용하여 작품의 서정성을 높임. ③ 10구체 향가(=사뇌가)의 정제된 형식미와 고도의 서정성이 두드러짐. ④ 불교의 윤회 사상 ¹⁾ 을 바탕으로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소망하며 인간적 고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하였다.

■ 작품의 구성

1~4행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
5~8행	누이(혈육)의 죽음을 통해 느끼는 안타까움과 인생의 무상감
9~10행	인간적 고뇌(이별의 슬픔)를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극복함. 화자의 심정이 집약.

이 작품은 10구체 향가로, '4행-4행-2행'의 3단 구성을 보인다. 1~4행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슬픔은 5~8행에서는 안타까움과 무상감으로 고조된다. 그러나 9~10행에서는 종교를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누이와의 만남을 기약하는 것으로 정서를 승화시키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화자의 태도 변화



■ 표현상의 특징

영탄법	9행 - ‘아아’ 감탄사를 사용해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의 폭을 강조함.
비유법	가을바람에 의해 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죽음을 자연의 섭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음. 자연의 섭리를 통해 누이의 이른 죽음을 나타내고 있음.

1) 윤회(輪廻) 사상 : 바퀴 윤, 돌 회.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중생(사람)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생사(삶과 죽음)를 거듭하며 삼계육도(三界六道)의 생사 세계를 그치지 아니하고 돌고 돈다고 보는 사상. 詩<님의 침묵(한용운)>에서 ‘우리가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구절은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한 구절이다.

■ 시어의 의미

이른 바람	죽음('이른 바람'은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불행으로 누이의 요절 의미)
떨어질 잎	죽은 누이('떨어지는 잎'은 생명이 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한 부모('한 가지'에서 난 잎은 그 근원이 같기 때문이다)
가는 곳	누이가 죽어서 갈 저승('가는'의 주체가 죽은 누이이고, 죽은 사람이 갈 곳은 저승이기 때문이다)

■ '죽음'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와 현실 대응 방식

누이의 죽음에 대해 절망하기보다는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하여 내세적인 만남이라는 불교 사상에 기대고 있다. 특히 시어 '미타찰(彌陀刹-극락세계)'에는 시적 화자의 현실 대응 방식이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자신의 감정을 감상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자세를 보인다. 낙구에서 시적 화자는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불교적 믿음으로 극복, 승화하며 수용하고 있다.

■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 '아아'

'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0구체 향가의 형식적 특징임. ② 앞부분에서 심화된 고뇌와 슬픔이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서 극복되는 순간임. ③ 작품 전체로 볼 때 시상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음.
------	--

■ 향가의 표기 방식

향찰(鄉札)은 중국 글자인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은 차자(借字) 표기의 일종이다. 한자를 빌려 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한자의 음을 빌려다 쓰는 음차(音借)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 뜻을 빌려다 쓰는 훈차(訓借) 방식이다. 향가 표기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적절히 혼용되었다. 대체로 명사나 동사의 어간 등은 훈차로, 조사나 어미 등은 음차로 표기하였다.

■ 이 작품과 관련된 설화

<삼국유사>에 의하면 월명사가 향가(제망매가)를 지어 죽은 누이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더니,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 종이돈(지전=돈 모양으로 오린 종이)이 서쪽으로 날아가 없어졌다고 한다. 월명사는 이에 자신의 누이가 서방정토(극락)로 갔을 것이라 믿게 되었다고 한다.

■ 비유와 상징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유사성에 근거해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일대일 대응을 이룬다면, 상징은 둘 사이의 유사성이 거의 없어도 성립하기에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가 일대대 대응을 이룬다. 또한 대체로 상징은 구체적 사물로 관념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암시하는 형식을 취하며, 지시 대상이 그 자체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문학적 상징은 그 환기력의 범위에 따라 다시 관습적 상징과 개인적 상징으로 유형화된다. 관습적 상징은 어떤 특정한 문화 안에서 이미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관습적 상징에 속한다. 관습적 상징이 기존에 존재하는 상징체계를 활용한다면, 개인적 상징은 한 작품에서 자신만의 상징을 창조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구별된다.

이 몸이 죽어 가서_성삼문

■ 구절 풀이

초장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

성삼문이 세조에 의해 왕위를 빼앗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할 때 지었다는 창작 배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작품의 초장은 가정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죽은 뒤에도 변함없이 충절을 지킬 것임을 말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중장 봉래산(蓬萊山) 제일봉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어 있어

→ 봉래산 가장 높은 봉우리에 우뚝 솟은 키 큰 소나무가 되어서

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자신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종장 백설이 만건곤(滿乾坤)할 제 독야청청(獨也靑靑)하리라.

→ 흰 눈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홀로 푸르리라.

시련과 고난을 흰 눈이 온 세상으로 표현해, 그에 따라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더라도 자신은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미이다. 즉, 세조와 그의 세력이 온 나라를 장악하여 다른 사람들이 변절하고 세조 편으로 돌아설 때, 자신만은 죽어서도 홀로 단종을 향한 충심을 버리지 않고 절개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의지적, 상징적
제재	낙락장송
주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절개
특징	① 전통적 상징물인 ‘소나무’를 사용하여 굳은 지조를 우의적으로 표현함. ② 가정(假定)과 비유, 상징을 통해 주제를 드러냄.
상황	부정적인 세력이 세상을 장악한 가운데 위기를 맞음.
태도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홀로 지조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냄.

■ 시어의 의미

봉래산	순수한 자연
낙락장송	화자의 지조와 절개
백설	시련, 고난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 일파)
만건곤할 제	하늘과 땅에 가득할 때 (수양대군의 득세)

■ 표현상의 특징

색채대비	흰색과 푸른 색의 대비
자문자답의 형식	<초장> 이 몸이 죽은 다음 되려는 것에 대한 자문(自問)
	<중장> 낙락장송이 되고자 함. 자답(自答)
	<종장> 독야청청하고자 함. 자답(自答)

동짓달 기나긴 밤을_황진이

■ 구절 풀이

초장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 동짓달 기나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내어

동지는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때이면서 날씨가 몹시 추운 때이다. 따라서 그 밤은 현실의 화자에게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화자는 긴 동지의 밤(시간)에서 그 일부를 잘라내고 싶어 한다.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현실에 있는 사물처럼 구체화시켜 표현한다.

중장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²⁾ 넣었다가

→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다 서리서리 넣었다가

잘라낸 겨울밤의 시간을 이불 속에 넣어 두려 한다.

종장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굵이굽이 펴리라.

→ 사랑하는 임 오시는 날, 밤이 되거든 굵이굽이 펴리라.

그리운 임이 오면 넣어 두었던 겨울밤의 시간을 다시 펼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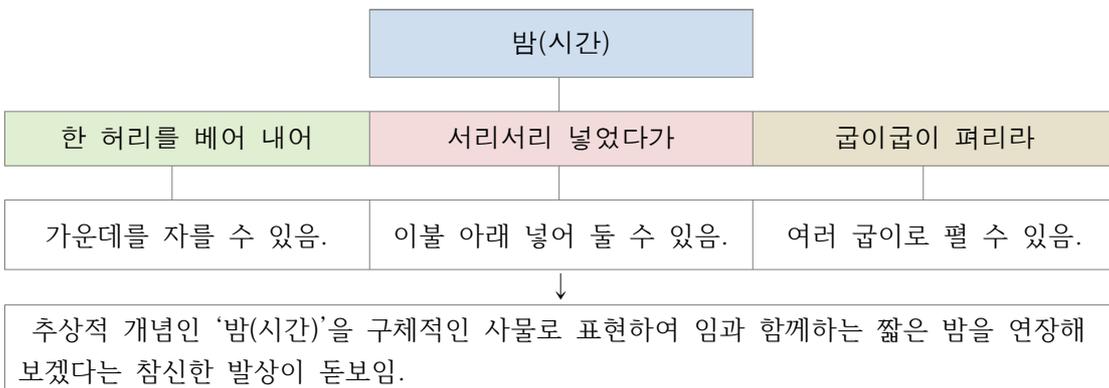
■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감상적, 서정적
제재	연모의 정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특징	①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함(=‘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② 음성상징어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냄.

■ 표현상의 특징

대조법	동짓달 기나긴 밤(혼자 외롭게 지내는 시간이라 길게 느껴짐->부정적 시간) ⇕ 어론 님 오신 날 밤(임과 즐겁게 지내는 시간이라 짧게 느껴짐->긍정적 시간)
음성 상징어의 사용	‘서리서리’는 동지의 긴 밤이 접히는 모습을 표현한 음성상징어(의태어) ‘굵이굽이’는 밤을 펴는 모습을 표현한 음성상징어(의태어)

■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2) 서리서리 : 형클어지지 않도록 둥글게 포개어 감아놓은 모양

님의 침묵_한용운

■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여성적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특징	① 경어체를 사용하여 여성적 어조를 느낄 수 있음. ② 역설적 상황 인식을 통해 주제를 표출함. ③ 제목인 '님의 침묵'은 영원한 진리의 말을 의미한다.

■ 작품의 구성

1~4행	임과의 이별 (임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에 놀람)
5~6행	이별 후에 느낀 슬픔
7행의 '그러나'에서 슬픔에 대한 인식이 전환됨.	
7~8행	슬픔의 힘을 희망적으로 전환시킴.
9~10행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함.

■ 표현상의 특징

감각적 심상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함.
역설법	'재회에 대한 강한 믿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강조함.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망매가>의 9~10행의 내용과 현대시 <님의 침묵>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태도나 사상
 <제망매가>와 <님의 침묵>의 화자는 사랑하는 대상과 헤어졌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제망매가>의 '~기다리겠노라', <님의 침묵>의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와 같은 표현에서 그러한 화자의 공통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불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제망매가>는 불교의 내세 사상이, <님의 침묵>은 떠난 이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드러나 있다.

■ <님의 침묵> 전문과 '불교의 윤회사상'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反)
-----------	---

개를 여나문이나 기르되_작자 미상

■ 구절 풀이

초장 개를 여나문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알미우라

→ 개를 열 마리 넘게 기르지만 이 개처럼 알미운 놈이 있을까.

중장 미운 님 오며는 꼬리를 뒤흔치며 치똥락 나리 똥락 반겨서 내달고 고운 님 오며는 뒷발을 바등바등 무르락 나오락 캥캥 짓는 요 도리암개

→ 미운 임이 오면 꼬리를 뒤흔치면서 아래위로 뛰면서 반기고, 사랑하는 임이 오면 뒷발을 바등거리면서 물러났다 나아갔다 캥캥 짓어서 돌아가게 하는 이 암개.

종장 쉰 밥이 그릇그릇 날진들 너 먹일 줄이 있으라

→ 쉰밥이 그릇그릇(아무리 많이) 남을지라도 너 먹일 줄 있으라?

■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성격	해학적
제재	원망스러운 개
주제	임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마음
특징	①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개에 대한 원망을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함. ② 과장된 표현과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함.
해학적 표현	‘요 개(그리운 임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 대상)’가 하는 행동을 해학적으로 그리면서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냄.

■ 작품의 구성

초장	기르는 개가 알미움.
중장	미운 임이 오면 반기고, 사랑하는 임이 오면 쫓아버리는 알미운 개의 행동을 해학적으로 표현함.
종장	개에 대한 원망을 표현함.

■ 작품의 이면적 주제

표면적	고운 임을 내쫓는 개에 대한 원망
▼	
이면적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 ‘이 몸이 죽어가서(평시조)’와 ‘개를 여나문이나 기르되~(사설시조)’의 차이점

이 몸이 죽어가서 평시조	작품 구분	개를 여나문이나 기르되 사설시조
양반 계층	작자층	작자 미상(중인 or 평민층으로 추측)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성 한자어를 주로 사용함.	형식	중장의 길이가 다소 길다. 종장의 첫 3음절을 제외하고 길어짐. 순우리말 주로 사용.
충(忠)과 같은 유교적 이념에 바탕. 이상화된 자연물을 활용함.	내용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사용. 대상에 대한 솔직한 감정이 드러남. 해학적 요소가 있음.
유교적 세계관이나 정신적 품격 등에 대해 비유적, 관념적으로 노래함.	표현	생활과 밀착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이 나타나며, 풍자와 해학이 두드러짐.